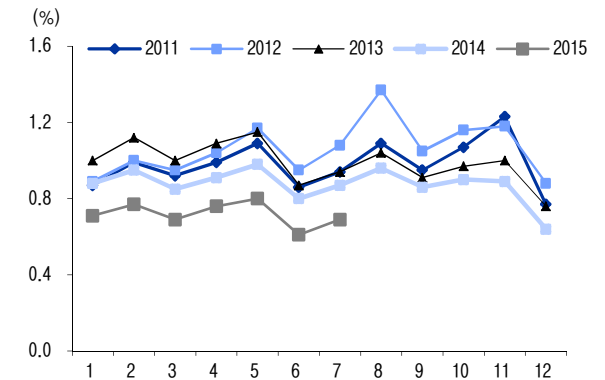


7월 연체율: 하향안정흐름 지속

News / Issu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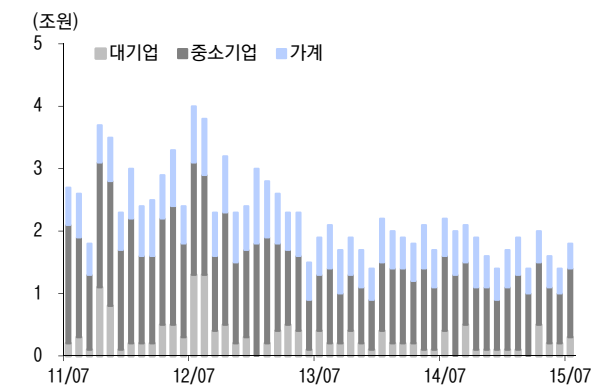
- 7월말 연체율: 0.69%(+8bp MoM, -18bp YoY)
 - 기업 연체율: 0.88%(+12bp MoM, -15bp YoY)
 - 대기업 0.84%(+16bp MoM, +11bp YoY), 중소기업 0.90%(+12bp MoM, -24bp YoY)
 - 가계 연체율: 0.44%(+2bp MoM, -22bp YoY)
 - 주택담보대출 0.35%(+0bp MoM, -18bp YoY), 신용대출 0.67%(+6bp MoM, -28bp YoY)
- 7월 중 신규연체규모 1.8조원(+0.3조원 MoM, -0.2조원 YoY)
 - 기업 신규연체 1.4조원(+0.4조원 MoM, +0조원 YoY), 가계 신규연체 0.4조원(+0조원 MoM, -0.1조원 YoY)

국내은행 월별 연체율(전체)



자료: 금융감독원

국내은행 신규연체 규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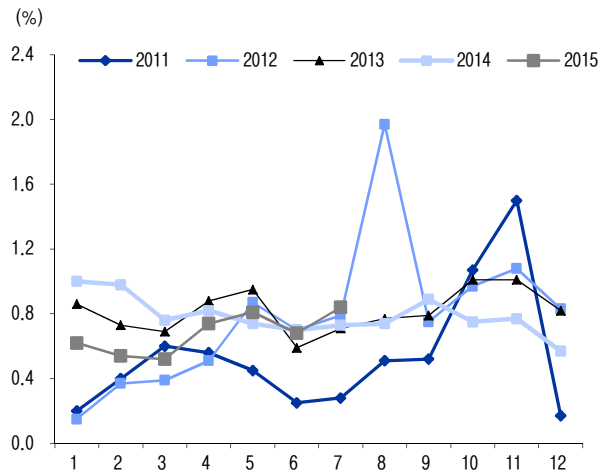


자료: 금융감독원

Implication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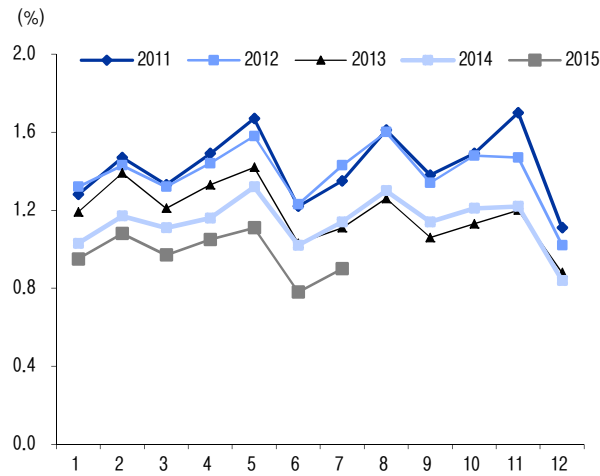
- 연체율 하향흐름 유지
 - 7월 전체 연체율(0.69%)은 직전 5년 평균(0.96%)대비 27bp 낮은 수준
 - 저금리에 따른 상환부담 완화와 담보위주 대출취급의 영향
 - 대기업 연체율 상승은 일부 구조조정 기업 연체에 기인
- 신규연체 발생 규모 또한 낮은 수준
 - 7월 신규연체 발생규모 1.8조원으로 직전 4년 평균(2.65조원) 대비 낮게 유지 (기업 평년수준, 가계 평년하회)
 - 전월대비 연체율 상승은 7월 연체 정리규모가 0.8조원으로 6월(4.0조원)대비 크게 축소된 영향
 - 개인사업자대출의 경우 주로 담보위주로 취급되고 있어 부동산 경기 의존도 높은 상태

대기업 월별 연체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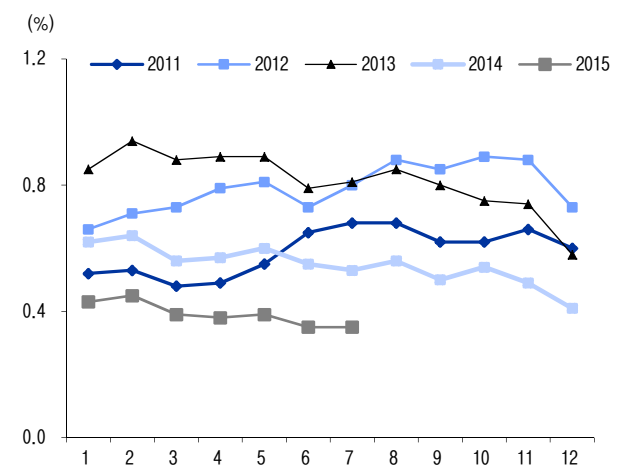
자료: 금융감독원

중소기업 월별 연체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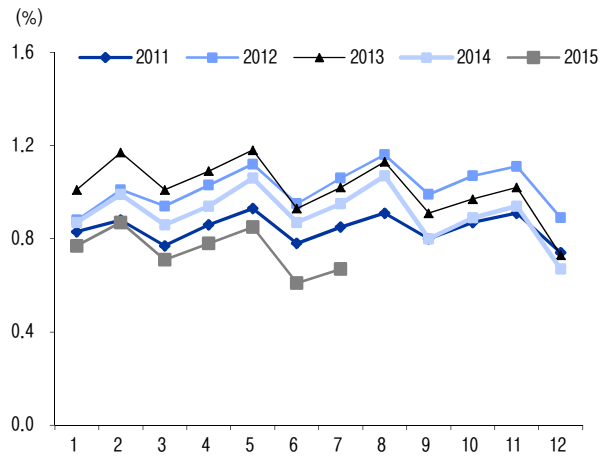
자료: 금융감독원

가계 주택담보대출 월별 연체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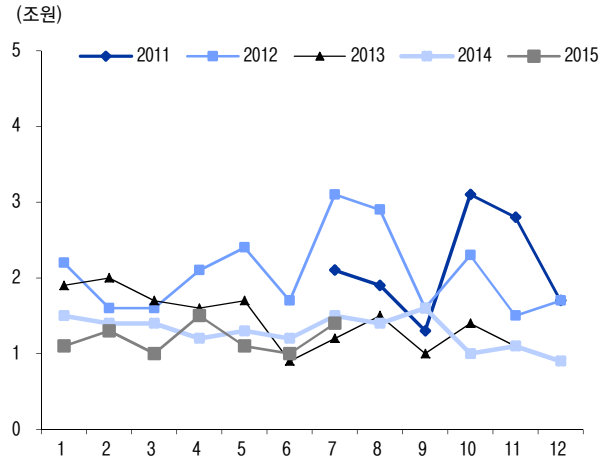
자료: 금융감독원

가계 신용대출 월별 연체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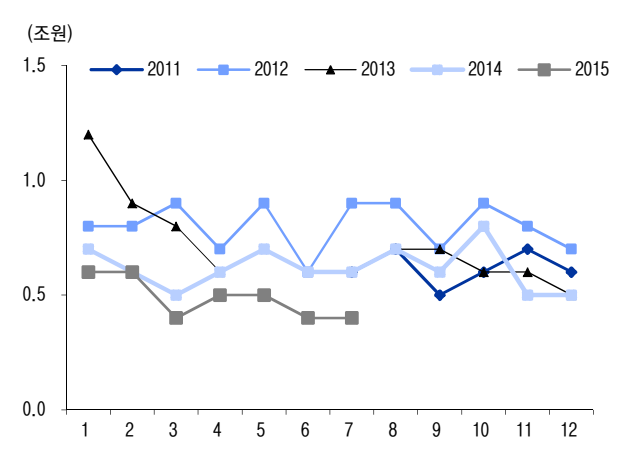
자료: 금융감독원

기업대출 월별 신규연체 발생액



자료: 금융감독원

가계대출 월별 신규연체 발생액



자료: 금융감독원

Compliance Notice

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(작성자: 전배승)

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.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
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될 수 없습니다..

-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.

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

구분	투자등급 guide line (투자기간 6~12개월)	투자등급	적용기준 (향후 12개월)	투자의견 비율	비고
Sector (업종)	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 투자등급 3 단계	Overweight (비중확대) Neutral (중립) Underweight (비중축소)			
Company (기업)	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3 단계	Buy (매수) Hold (보유) Sell (매도)	+20% 이상 기대 -20% ~ +20% 기대 -20% 이하 기대	90.6% 9.4%	2015년 2월 2일부터 당사 투자등급이 기존 4단계 (Strong Buy / Buy / Marketperform / Sell)에서 3단계 (Buy / Hold / Sell)로 변경
		합계		100.0%	투자의견 비율은 2014. 7. 1 ~ 2015. 6. 30 당사 리서치센터의 의견공표 종목들의 맨마지막 공표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등급별 비중임 (최근 1년간 누적 기준. 분기별 갱신)